



‘더 나은 임실, 살고 싶은 임실’ 건설 위해 힘차게 달린다

민선 6기 출범 2년차 전반기를 마무리하는 심민 군수는 그동안 ‘새로운 변화, 살고 싶은 임실’의 군정 지표를 내걸고 ‘더 나은 임실, 살고 싶은 임실’을 만들기 위해 힘 없이 달려왔다.

그 결과 옥정호 상수원보호구역 해제로 관광특구 기반을 마련하고, 임실N치즈 축제 성공적 개최 및 치즈산업 경쟁력을 강화했으며, 2년 연속 3,500억 원 예산 시대를 활짝 열고 3만 인구달성 등 군 발전의 기틀을 마련했다.

또한, 군민들과 약속했던 4개 분야 60개의 공약사항 이행을 위해 직접 발로 뛰며 동분서주한 결과 전체 60개 사업 중 17개 사업을 완료했으며, 39개 사업이 정상 추진되고 있다.

2년 연속 3,500억 예산편성, 3만 인구 달성... 군 발전 기틀 마련
옥정호 상수원 보호구역 해제로 관광특구 기반 마련
임실N치즈축제 성공 개최 · 낙농특구 지정... 임실N치즈 세계화

함께하는 희망농업 · 활력있는 지역경제 등
후반기 4개 핵심전략 7대 중점과제 선정 추진

▶ 심민 군수의 소회와 포부



“더 알찬 결실 맺겠다”

“새로운 변화, 살고 싶은 임실’ 건설을 위해 열심히 달려오다 보니 어느덧 민선 6기 전반기가 지났습니다.

지난 2년 동안, 군민들과 약속했던 공약사항과 주요 사업 추진을 위해 부단히 노력해 온 결과 옥정호상수원보호구역 해제로 2년 연속 3,500억 원 예산 편성, 임실N치즈축제 성공 개최, 그리고 3,073억원의 국가 예산 확보와 62개 공모사업 선정 등 괄목할 만한 성과를 도출하여 새로운 임실발전의 기틀과 동력도 확보했습니다.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민선 6기 후반기에는 이들보다 더 큰 알찬 결실을 맺어 군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더 살고 싶은 임실’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우리 임실 지역발전과 경제성장을 견인해나갈 옥정호권역 관광거점 개발을 비롯해 임실N치즈와 양념·과수 등의 6차 산업과 성공적 모델을 통하여 농업·농촌의 창조경제를 실현시켜 나가고, 역사적 가치를 활용한 ‘성수산 왕의 숲’, 그리고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으뜸복지 구현과 미래 명품 인재양성 교육에도 힘쓰겠습니다.

앞으로도 더 많이 성원해주시고 힘도 실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임실=진홍영 기자

민선6기 전반기 주요 성과

▶임실발전 중장기 기틀 마련

임실군은 지역현안 문제 해결과 주민복지와 지역발전의 다양한 정책실행을 위한 자원 확보에 역량을 집중한 결과 2년 연속 3,500억원 예산시대를 열었으며, 조례제정 및 시책추진으로 인구 3만명을 달성했다.

또한, 예산 확보를 위해 ‘국가예산확보 집중 활동기간’을 설정하고 정부세종청사와 주요 관계부처를 오가며 폭넓은 행보를 이어가는 등 총력을 기울여 2014년 1,002억원, 2015년 1,108억원, 2016년 현재 963억원의 국가예산을 확보하였고, 중앙공모사업에 선제적으로 대응한 결과 2014년 15개 사업 136억원, 2015년 36개 사업 101억원, 2016년 전반기 11개사업 70억원의 예산을 확보하는 쾌거를 거뒀다.

▶농업·농촌 활력화 동력 확보

‘돈 버는 농업, 행복한 농민, 살고 싶은 농촌’ 실행을 위해 ‘농축산물 생산안전기금’을 조성, 농축산물의 최저 생산비를 보전했으며, 명품 임실고추를 중심으로 양파, 마늘, 부추 등 채소를 활용한 ‘임실N 양념식품산업’ 육성으로 오는 2018년까지 30억원을 들여 ‘임실양념식품산업’ 브랜드화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또한, 지역특화작목 영경귀, 독활, 옷 재배가 지난해 전북도 ‘향토건강식품 명품화사업’으로 선정돼 발전 가능성을 인정

받음에 따라 오는 2020년까지 총 30억원을 투입하며, 임실N과수용복합사업(30억원), 임실순창 옷 발효식품 가치창조사업(60억원) 등으로 신 성장동력 기반을 구축했다. 지난해 도내 최초로 도입한 ‘농업인 월급제’는 농업인의 큰 호응을 얻고 있으며, 고령 영세농 영농경영비 지원, 재배 농업인 건조비 지원 등을 통해 농업인 삶의 질 향상에 주력했다.

특히, 순창군, 남원시와 함께 지난해 설립한 조합공동법인 ‘(사)임·순·남 도농인력지원센터’가 농번기 부족한 농업 노동력을 공급하고 지역 내 일자리 창출 및 적기 농작업 실시로 도·농이 상생하는 1석3조의 효과를 거두고 있다.

▶옥정호 상수원보호구역 해제로 관광특구 기반 조성

민선 6기 전반기 심민 군수의 수많은 성과 중 으뜸은 옥정호 상수원보호구역 해제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옥정호 상수원보호구역이 16년만인 지난해 8월 해제됨에 따라 임실군의 대표 자연생태자원인 옥정호와 섬진강의 자원을 활용하여 섬진강에코뮤지엄사업(280억원), 옥정호 친환경 수상레포츠타운 조성(70억원), 봉어섬주변 생태공원 조성(85억원) 등 관광·레저·휴양의 복합관광지로 개발하며, 옥정호와 섬진강-필봉공물촌-임실

치즈-성수산 왕의 숲-사산대 등으로 이어지는 관광벨트를 구축해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 방침이다.

▶대한민국 치즈의 원조, 임실N치즈 6차산업 선도모델로 육성

임실N치즈는 지난해 10만여명이 찾은 ‘임실N치즈축제’ 성공 개최와 3년 연속 대표브랜드 대상으로 선정됨에 따라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브랜드로 도약했다.

또한, 임실N치즈·낙농특화사업 특구지정이 지난 3월 확정됨에 따라 치즈마을, 치즈테마파크, 낙농가 등 600여 필지에 289억원을 투입해 오는 2020년까지 치즈 생산기공, 치즈체험관광 등 특화사업을 추진하며, 이 사업이 완료되면 530억원의 생산 유발효과와 970여명의 고용창출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치즈랜드조성사업(204억원), 치즈식품클러스터(160억원), 치즈테마파크 대표관광지 육성(50억원)사업 등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대한민국 농업·농촌 6차산업 선도모델로 육성해 나갈 계획이다

▶모두가 누리는 맞춤형 생활복지 실현

심민 군수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해 우대승차권을 지원하고, 군 보건 의료원에 안과를 개설하는 한편, 물리치료실 정비 확충 및 물리치료사 채용으로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해 큰 호평을 받았다.

또한, 시니어클럽 운영으로 노인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했으며, 지난 3월 1일부터 농어촌버스 1천원의 단일요금제를 시행하고, ‘수요응답형 행복버스’를 운행하는 등 교통복지 향상에 기여했다.

장애인 보호작업장, 콜택시 운영 등으로 장애인 복지 향상에 주력했고 독거노인, 장애인, 조손 가정 등의 생활 불편사항을 직접 찾아가 해결하는 ‘더불어 살고 싶은 생활복지단’ 및 지역사회복지협의체를 통해 생활복지 체계를 구축하고 운안면, 강진면, 신광면에 작은 목욕탕을 건립했다.

▶지역경제 활성화 · 35시간 상생협력 강화

심민 군수는 제2농공단지 조성과 중소기업 경영지원으로 일자리 창출 및 기업환경 개선 여건을 마련하고, 임실시장 다기능 주차장 조성, 임실시장 상품권사용 활성화를 통해 지역상권 회복의 발판을 마련했다.

특히, 오는 2018년까지 임실·우수·관촌에 도시가스 확대 공급에 나서 정주여건 개선 및 활력화를 꾀한다.

또한, 마을하수도 정비 및 상수도 확장,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농어촌 임대주택 건립, 하천정비, 재해위험지역 정비 등 쾌적하고 안전한 살기 좋은 생활여건 개선에도 적극 노력했다.

민선6기 후반기 추진 방향

‘더 나은 임실, 살고 싶은 임실’ 건설을 위한 큰 변화를 위해 숨가쁘게 달려온 민선 6기 심민 호는 후반기에 맞아 4개 핵심전략과 7대 중점과제를 선정하고 군민 체감만족도 증대에 나선다.

심 군수는 군정 전체를 아우르는 ▲함께하는 희망농업 ▲활력있는 지역경제 ▲찾아가는 맞춤복지 ▲풍격있는 교육·문화의 4개 핵심전략 달성을 위한 7대 중점과

제에 사활을 걸었다.

먼저, 임실을 도시 인프라 확충 및 정주여건 개선을 통해 ‘임실소도시’를 완성하고 ‘옥정호권역 수변관광개발’을 강력히 추진, 핵심관광거점으로 개발해 옥정호(수변생태)-임실치즈(6차산업)-성수산(산림휴양)으로 이어지는 관광벨트를 구축한다.

또한, 전국적인 브랜드로 자리매김한 ‘임실N치즈’의 세계화를 추진하는 한편, 대

외인지도가 높아진 ‘대한민국 치즈의 원조, 임실치즈’를 중심브랜드로 육성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한다.

‘산이암 과 성수산 관백나무 숲 휴양림’을 거점으로 역사적 가치와 지역 자산을 활용한 ‘성수산 왕의 숲’ 사업을 추진해 ‘제1호 군립공원’ 지정과 자연친화적 휴양공간으로 조성하고, 향토산업(양념, 과수)을 통한 복합산업화와 로컬푸드·귀농귀

촌·마을공동체 활성화 등을 ‘임실형 농식품 6차산업화’ 모델로 창출해 농업·농촌분야의 창조경제를 실현해 갈 계획이다. 교통, 농업실질소득, 의료 등 주민편의 인프라와 환경 개선을 통해 ‘맞춤형 생활복지’를 실현하고 우수 장학생 지원, 맞춤형 학습프로그램 개발, 인적네트워크 구축으로 명품 임실교육에도 박차를 가할 방침이다. /임실=진홍영 기자